

정부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속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

1. 관련 기사

- 9.21.(월) 동아일보, “신청서 인정까지 120일로 단축 목표” 예산 2.7배 늘렸는데 아직 221일... 속도 못내는 산재 처리’ 기사 관련

<주요 기사 내용 >

- 예산 47억→127억, 인력 확대에도 올해 목표한 160일보다 61일 길어
- 신청 단계부터 사안 경중 가리고 ‘근로자 직접 소명’ 방식 개선해야

2. 설명 내용

-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‘25.9월 ‘업무상 질병 산재처리 기간 단축 방안’을 발표하고 조사·판정 절차 개선 등 다각적 노력 추진 중
- 이에 따라,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기간은 ‘26.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34.7일 단축되는 등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
 - *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: ‘25.7월 27,278건 → ‘26.7월 39,636건(45.3% 증가)
 - **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: ‘25.7월 253.2일 → ‘26.7월 218.5일(34.7일 감소)
 - 요양 및 치료가 불필요한 장애급여 지급 대상(소음성 난청)을 제외하는 경우, 처리기간은 154.3일로 나타남
 - * 소음성 난청 처리기간: ‘25년 388.0일 → ‘26.7월 445.5일
↳ 특별진찰 대기 장기화에 따라 처리기간 증가, ‘26.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진찰기관 확대(병·의원까지 확대)
 - **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(난청 제외): ‘25년 198.0일 → ‘26.7월 154.3일(43.7일 감소)
- 노동부는 향후 신속·공정한 산재 보상을 위해 처리 절차·기준 개선 및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
- 또한 업무상 추정 제도 법제화, 산재보상 대리인(국선대리인) 제도 도입을 통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음

담당 부서	산업보건보상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	책임자	과 장	곽철홍 (044-202-8830)
		담당자	사무관	신지원 (044-202-8846)
		담당자	사무관	김민영 (044-202-8847)

